

다시 오월

의정단상



정다은
광주시의원

올해도 오월이 시작됐다. 마흔 네 번째 오월이다. 특전사동지회와의 대국민 화해 선언식의 여파로 지역이 내내 소란스러웠던 작년 이어 올해 오월도 불안스런 기미가 짙다.

80년 5월 이후 40여년 만에 진행된 진상규명 조사가 완료되고 종합보고서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광주공동체의 요구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가 직권과제별 조사보고서를 공개한 이후 광주의 여러 단위로부터 연일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외부와 소통없이 갑갑이로 진행된 4년의 조사기간 동안 쌓여온 불안이 현실이 되자 사람들의 분노가 불뿔처럼 터져나온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분노를 표출함에 그치지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 기자들,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 5·18기념재단 등이

전문적 식견을 동원해 진조위가 작성한 개별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한발 더 나아가 진조위가 부실한 조사보고서를 낸 것에 대한 원인을 찾는 작업을 시작했다. 진조위를 상대로 조사계획, 구체적인 조사활동의 내용, 조사위원들의 근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된 것이다. 원래 차관급 기관인 진조위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단위는 국회이나, 현재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지 않아 그 역할에 공백이 생겼고, 불행히도 그 사이에 진조위는 활동을 종료하고 올해 6월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며 전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받아온 진조위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공적인 평가를 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송선태 위원장은 공적인 자리에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해왔다. 그러나 5·18진상규명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조위는 5·18특위의 정보 공개청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진조위의

협조에 따라 원인진단과 보완책 모색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은 진조위 뿐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운영비 부담을 광주시에 전가했다.

관련법은 국가기관의 운영비를 정부가 부담하라고 정하고 있다. 법을 어기는 검찰공화국의 처사에 시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법이 아니라도 국가폭력피해자들의 트라우마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책임은 가해자인 정부에게 있다. 그런 정부의 몰염치한 예산편성은 명백한 2차 가해이다. 2차 국가폭력이다.

그 와중에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은 어떤가.

광주 곳곳에 소재한 사적지들은 흥물이 되어가고 있지만 사적지 보존관리에 관한 계획도 사업도 예산도 없다. 또 공법단체의 시지부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예산도 지원되지 않는다.

누군가 말했다. 1980년 5월에 시작된 고통이 2024년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다시 오월인데, 마음은 한없이 무겁다.

社說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시민안전 소홀 안돼

공사구간 화재 시민 불안 가중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백운광장 공사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이 출근길 교통혼잡을 겪었다고 한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장기화에 따른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호선 공사구간에 대한 안전강화가 절실히 보인다.

2일 광주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2분께 남구 백운광장 도시철도공사구간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1시간 2분 만에 꺼졌다. 현장 작업자 11명이 신속히 대피했다. 불로 인해 공사장 일대가 검은 연기에 휩싸였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상에서 용접 작업 중 환기구 방수시트 보호재에 불씨가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배연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019년 시작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총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1단계는 오는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당초 개통시기보다

무려 2-3년 지연되면서 공사구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도 빈번해지고 있다. 저심도 도시철도 공법 때문에 수도관 파열로 인한 단수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사장 주변 주택, 담벼락 붕괴 뿐 아니라 싱크홀 등도 발생했다. 산수동 구간에서는 보행자가 숨지면서 허술한 안전 조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30년 전 대구 도시철도 1호선 공사장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폭발사고는 전 국민이 기억하는 대형 참사다. 1995년 4월 28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상인역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무려 사망 101명, 부상 202명 등 총 30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어처구니없게 인재였다. 도시가스 배관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무단 굴착하는 과정에서 중장비가 가스관을 파손해 발생했다. 대구 참사를 지켜본 광주 시민들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내 잦은 사고에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이한 생각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내놔야 할 때다.

5·18인권상 의미와 가치 시민이 기억해야

스리랑카 수간티니 여사 선정

올해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스리랑카 수간티니 마티아무탄 탕가라사 여사가 선정됐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제정된 광주인권상은 인권 탄압에 시달리는 인권활동가들에게 '희망을 안기는 빛'으로 자리매김 했다. 이번 수상이 수간티니 여사가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을 위로하고, 스리랑카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수간티니 여사는 스리랑카 정부군에 맞서 '존엄성을 향한 멈추지 않는 투쟁'을 의미하는 단체 '아마라'의 대표로 활동하며 전쟁 피해 여성들을 대변해 왔다. 2009년 발발한 내전 이후 수간티니 등이 속한 타밀인은 군이 통제하는 지역으로 강제이주당했다. 수간티니는 이 과정에서 팜파이마두 수용소에 불법 구금돼 고초를 겪었다. 3년 뒤인 2012년 4월 풀려난 그는 자프니 지역에 정착해 아마라를 세우고 전쟁 피해 여성들의 인권 신장과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이래 광주인권

상은 국가폭력에 맞선 인사부터, 분쟁 지역의 평화운동에 나선 이까지 모두 35명의 수상자와 특별상 수상자를 배출해 아시아 권 국가의 인권 문제에 대한 공감과 인식을 높여 왔다. 국가폭력이라는 끝나지 않은 싸움에 나선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도 했다.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것도 광주인권상이 갖는 의미다.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포용성과 다양성을 높인다는 의미도 크다.

인권은 이념을 떠나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다. 광주인권상도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중요한 상징이면서 국제 사회의 관심과 연대를 보여주는 희망이다. 광주시민 모두가 수간티니 여사를 비롯해 35명의 역대 수상자들이 국제 사회에서 인권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관심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의미와 가치도 기억해야 한다. 국가폭력이라는 비슷한 아픔을 겪은 수간티니 여사를 비롯한 스리랑카의 인권활동가들이 광주의 관심과 격려로 더 큰 희망과 용기를 얻길 다시 한번 기대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동물보호연함을 비롯한 동물보호 활동가들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에르메스 매장 앞에서 에르메스의 악어 학살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스

서석대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8년 3월, 미국 캔자스 주 펀스턴 기지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였던 이 질병은 사람들이 방심한 사이 부대 전체로 퍼졌고, 6개월도 안돼 전 세계로 확산됐다. 20세기 인류의 가장 큰 비극으로 손꼽히는 스페인 독감이었다. 시신을 담은 관이 부족하고, 무덤을 팔 시간이 없을 정도로 폭력적이고 잔인했던 이 질병에 감염된 사람만 5억여 명, 사망자도 최고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역사와 지도를 바꾼 역사상 최악의 의학적 홀로코스트였다.

하지만 정작 비극의 주연은 바이러스가 아닌 세균성 박테리아였다. 스페인 독감에 감염된 환자들은 면역 체계가 무너져 세균성 폐렴 등 2차 감염에 취약했고, 대부분의 사망자는 박테리아가 원인인 세균성 폐렴으로 생명을 잃었다. 당시 의학계도 '적절한 항생제가 없었던 상황에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그동안 쌓아왔던 인류의 의학 능력을 한껏 조롱했다'고 토로했다. 얼마 전 지구촌을 뒤흔든 코로나19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사망보다 폐렴에 의한 사망이 훨씬 많았다.

속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바이러스와 달리 박테리아 등 세균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독립적인 생명체다. 지구

상에서 가장 수가 많고 적응력이 뛰어나다. 수심 1만m 아래 바다 속부터 원전 폐기물 저장탱크까지 지구상에서 세균이 살지 못하는 곳도 없다. 세균은 또 생명체에게 양날의 칼이다. 일부 박테리아와 세균이 생명체의 생존을 돕고 농업과 환경을 보호해 주는 반면, 일부는 폐렴균처럼 위협적이다. 유전공학자 버나드 디슨은 이런 세균을 두고 '보이지 않는 권력자'라고 했다. 인류와 공존하면서 적이자 동지로서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최근 인도 마드라스 공대와 NASA연구진이 우주정거장에 있는 박테리아에서 지구와는 전혀 다른 돌연변이를 발견했다고 한다. 극한의 우주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변이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게 연구진의 추정이다. 진화와 적응을 거쳐 대기권 밖에서 살 수 있는 첫 생명체의 가능성도 내놨다. 디슨은 박테리아를 두고 '변신의 천재이면서 생명의 본체'라고 했다. 생명체라곤 없는 우주에서 이 박테리아는 변신의 천재답게 새로운 생명으로 진화를 계속할 수 있을까. 우주개발이라는 인간의 탐구욕이 만들어낸 상상할 수 없는 '우주형 박테리아'가 인류와 지구 생태계에 어떤 변화와 충격을 가져올지 두렵다.

이용한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 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